



강원대 세계대학 평가 200위권 3년 연속 진입...국내 6위

강원대학교는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상위 20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한양대, 전북대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세계 1천2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 국내 대학은 17곳이 참여했다. 강원대는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부문에서 세계 64위에 올랐으며, 빈곤 종식, 기아 해소,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도시·지역사회, 육상보호 등 5개 부문에서 세계 100위권에 포함됐다. 김현영 총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상생발전과 문화 창출의 허브 대학으로서 강원대의 위상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 2021년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해당 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 인프라 지원으로 연구거점을 구축해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우수한 신진 연구 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원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9년 동안 연구비 총 7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융복합 기

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신진 연구인력 육성, 강원특화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장철성 생물자원과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강호민 원예과학전공 교수, 김대현 바이오산업공학부 교수, 이육환 바이오산업공학부 교수, 박세진 환경융합학부 교수, 김주일 생물자원과학부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김현영 총장은 "우수한 연구역량과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영 강원대학교 총장



평화통일 포럼 및 통일주간 학술행사 정기 개최

점경지역 연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고성·양구·인제·철원·화천)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운영

DMZ 연구 최고 권위 'DMZ HELP 센터'

일반대학원 '평화학과' 신설

2015년 '통일강원연구원' 설립

평양과학기술대학 교류협약 체결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
강원도의 거점국립대학 강원대학교는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으로서의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지평을 넓히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남북한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와 융합의 중심에서,
강원대학교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통 일 한 국 의
미 래 를
이 끌 다

